

연구논문

한국의 문화자본 지형도 구성을 위한 척도개발 기초연구: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선호를 중심으로*

Basic Research for Constituting the South Korean Society's Cultural Capital Topographic Map: Based on Culture and Art Activities and Music Genre

최셋별**, 이명진***

SetByol Choi · Myoung-Jin Lee

본 연구는 대규모 조사 자료에 근거한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지형도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집적된 기존 자료와의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에 적합한 질문 문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국내의 문화자본 관련 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주요 문헌과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 및 관련 질문지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질문지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영역과 차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영역과 차원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한 질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각 분야별 문헌조사와 전문가 조사, 그리고 대상자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장르를 주요 영역으로 선정하고 문화의 '고급/대중' 차원과 '소비/생산' 차원,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문화자본의 보유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에서 일관성 없이 사용된 문화자본 측정의 세 가지 측면(선호, 참여, 인지)을 통합·보완하여, 각 항목을 좋아하는 정도(선호), 각 항목에 참여하는 정도(참여), 그리고 각 항목이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정도(인지)와 각 항목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자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방대한 양의 질문 문항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들을 추가하여 보다 한국적인 문화자본을 찾아낼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고, 이로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한국연구재단-2009-기초연구 과제지원사업(토대연구)-NRF-2009-322-B00013).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명진.

E-mail: leemj@korea.ac.kr

써 그 동안 서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문화자본 논의에 있어서의 비서구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문화자본 척도, 문화예술 활동, 음악장르 선호, 옴니보어 가설

This research is a part of a fundamental research to form the topographic map of the South Korean society's cultural capital, based on large scale research data. Its purpose is to suggest suitable questions for today's Korean society as well as to compare with previous data accumulated from other nations. For this,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theoretical background through critical study on the extensive literature on domestic and foreign cultural capital and collect measures, questionnaires, and data used in important literature and surveys. Based on this, the major domains and levels that should be dealt in the questionnaire were chosen,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r each field; experts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develop questions more suitable for the Korean society considering each domain and level, an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ubjects were conducted.

This research as seen through the above processes, music genres and culture activities were chosen as major domains, "high/popular" level and "consumption/production" level were chosen as items, and specific items were composed considering Korea's distinct characteristics. Each of these items combine and complement the three aspects of measuring cultural capital(preference, participation, perception), which have been used incoherently in previous researches in measuring the level of possession in cultural capital. This led to developing questions such as the level of liking each item(preference), the level of participating in each item(participation), the level of luxuriousness in each item(perception), and the level of stylishness in each item(perception).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critically examines the vast amount of questionnaires used in the past for cultural capital research, provides a large framework to find Korean cultural capital by adding items considering Korea'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provides groundwork to fill in the non-Western gap in the discussion of cultural capital, which has been based on the West.

Key words: measure of cultural capital, culture and art activities, music genre preference, omnivore theory

I. 서론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그의 독창적인 통찰력과 풍부한 경험적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취향과 지식, 그리고 개인의 자질 등이 어떻게 계급 재생산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사회과학계에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점화시켰다. 그의 이론은 영향력만큼이나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각기 다른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론의 적합성 문제와, 문화자본에 대한 조작화 및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론상의 문제는 이 같은 논쟁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 되어 왔다.

이처럼 양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부르디외의 이론은 학문에 대한 실증주의적 전통이 강한 미국 사회학계 내에서 수정·보완되고 또 정교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국가적 맥락에서의 문화자본에 관한 대규모 양적 연구들을 파생시켰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는 대규모의 양적 자료가 집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한국적인 문화자본인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역시 미진한 상황이다(최섯별 2006a).

이에 본 연구는 대규모 조사 자료에 근거한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지형도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집적된 기존 자료와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에 적합한 질문 문항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광범위한 국내외의 문화자본 관련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주요 문헌 및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 및 관련 질문지와 자료를 검토한 다음,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한국적인 문화자본을 찾아낼 수 있는 문항들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II. 문화자본 개념과 양적 방법론

부르디외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개념은 개념 자체의 다의성과 모호함 때문에 측정 대상으로서의 문화자본에 대한 학자들 간의 합의를 어렵게 하였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화자본은 계급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이해될 수 있으나, 부르디외가 각 계급이 보유한 문화자본을 구분함에 있어 예술작품과 같은 객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이

나 학력과 같은 제도화된 형태의 문화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취향, 무의식적인 말투나 행동, 매너 등 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까지를 포함시킴으로써, 이후 문화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문화자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문화자본의 측정을 둘러싼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부르디외의 이론이 유럽을 벗어나 실증주의 전통이 강했던 미국 사회학계에 소개되면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최선헌 2006a). 사람들의 문화 취향을 분석하여 각 사회 계급 간 구별짓기 행태와 계급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밝혀낸 부르디외의 통찰력은 분명 매우 뛰어난 것이었지만, 경험적 조사와 이를 통해 얻어낸 통계적 데이터에 대한 그의 사용은 미국의 방법론적 틀에서 보았을 때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Bisseret 1974; Eicher & Mingat 1975). 또한 부르디외가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중심 개념인 문화자본 개념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되었는데(Lamont & Lareau 1988), 많은 학자들이 문화자본을 자의적으로 조작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문화자본 개념의 조작화 문제가 대두되었다(최선헌 2002a).

이 같은 문화자본 개념의 조작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로써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기에는 여러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부르디외의 이론을 실증주의적 경향이 강한 미국 사회학계에 주요 전통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디마지오(DiMaggio 1979)이다. 사실상 부르디외를 미국 문화사회학계에 소개한 그는 부르디외의 이론을 설명하는 리뷰 논문에서 “부르디외의 문제의식은 중요하고 풍부하며 어떤 것은 대단한 저작이다. 그렇지만 그의 철학적인 전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미국의 사회학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그의 문화자본 개념을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측정 항목을 개발하였다. 디마지오(1982)는 문화적 참여가 미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에서 Project TALENT의 조사자료 중 음악회 참석이나 문학작품 읽기 등과 같은 질문 문항을 선별하여, 태도, 참여, 그리고 정보의 세 측면에서 문화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함으로써 통계자료를 통해 부르디외 이론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였고, 이 같은 시도는 후속 연구들(DiMaggio & Mohr 1985; DeGraaf, DeGraaf, & Kraaykamp 2000; Dumais 2002)을 통해 지속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디마지오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을 양적 방법론에 적합하게끔 조작화하여 문화자본의 양적 연구의 전통을 수립했다면, 피터슨과 심커스(Peterson & Simkus 1992)는

양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통해 문화 취향과 실천에 대한 새로운 옴니보어 가설을 제안함으로써 부르디외 이론이 갖는 적합성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피터슨과 심커스(1992)는 프랑스 사회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서도 계급 간 문화적 취향과 실천에 있어 위계가 존재하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남을 지적한다. 즉, 미국 지식인들의 경우 고급 예술을 더 많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활동에도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즐길 수 있는 문화의 폭이 각 사회계급이 차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본임을 주장하는 이들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취향의 차이가 양자적 논리 혹은 대립적 논리를 통해 관계적으로 정의된다는 부르디외의 설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배제를 이끄는 문화자본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촉구하는 한층 심화된 형태의 논의들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부르디외의 이론이 특정 시기의 프랑스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 다른 사회적 맥락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후 대규모 양적 조사를 통해 다양한 사회에서의 문화자본 지형을 그려보려는 연구들을 촉발시켰다(Chan & Goldthorpe 2007; Lopez-Sintas, Garcia-Alvarez & Filimon 2008; Heikkila & Rahkonen 2011). 예를 들어, 찬과 골드쏘로프(Chan & Goldthorpe 2007)는 현대 영국인의 음악소비 유형이 부르디외의 상동성 논의보다는 옴니보어 논의와 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로페즈-신타스와 가르시아 알바레스, 그리고 필리몬(Lopez-Sintas et al. 2008)은 스페인 사람들의 음악에 대한 취향과 소비를 분석하여 스페인 상층계급의 음악소비 유형에서 옴니보어의 다양한 패턴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한편 헤이키리와 라코넨(Heikkila & Rahkonen 2011)은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핀란드의 상층계급이 다른 계급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적극적인 혐오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어, 상층계급이 다른 집단의 문화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규모의 양적 연구와 통계분석이 어려웠던 부르디외의 이론은, 실증주의적 전통이 강한 미국 사회학계 내에서 이론적·방법론적으로 정교해지면서 점차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고, 그것의 재생산 과정을 은폐하는 다양한 경로들을 밝히는 데 보다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한국 사회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국내의 많은 연구들의 연구 결과들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작화된 문화자본 척도와, 이를 바탕으로 집적된 대규모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그 양적 풍부함이나 내용적

깊이에 있어 상대적으로 초기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점차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교육(김현주·이병훈 2007; 김경근·변수용 2007; 백병부·김경근 2007; 장상수 2007)과 여가(조광익 2006; 박상곤·박석희 2006; 한신갑·박근영 2007), 정보 불평등(이호영·장미혜·박현주 2006), 그리고 삶의 만족도(이기홍 2005)와 같은 다양한 영역이 문화자본과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문화자본 개념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를 계급 범주나 기타 범주의 설명변수 또는 종속변수의 하나로 추가하여 구색을 맞추는 수준이다. 문화자본의 조작화 역시 한국이라는 특수한 사회 내에서 계급 재생산의 기제로 작동하는 문화자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 없이 연구의 주제나 성격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범위 역시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연구 결과를 상대적으로 방대한 양의 양적 자료를 축적한 서양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문화자본의 지형을 그리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문화자본 연구가 갖는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대규모 양적 자료 집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지형도 구성에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사용된 방대한 양의 질문 문항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여기에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들을 추가하여 보다 한국적인 문화자본을 찾아낼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III.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연구의 특수성

현대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문화자본을 찾아내기 위한 척도를 구성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연구들에 사용된 질문 문항들을 현대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문화자본은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은 아니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또 특수한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질문 문항을 제시하기에 앞서,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문화자본을 측정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되어 온 문화활동의 생산 측면과 문화자본 측정의 네 가지 차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대 사회의 시대적 특성: 대중문화 위상의 변화

계급과 취향의 상응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전통은 부르디외의 연구에서 클래식 음악과 같은 순수예술이 사회적으로 가장 정당화된 고급문화로 등장한 이후,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 기초를 두어왔다(Bourdieu 1984; Gans 1974).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각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자본을 측정하고자 한 그 동안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자연스럽게 고급문화 중심적인 문화자본 조작화 작업을 수행해 왔고, 이는 대중문화가 갖는 문화자본론적 함의를 사상(死傷)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1996년 한국어로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된 부르디외의 『구별짓기』는 1963년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1979년 출간된 저서로, 그의 이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고자 시도하는 현 시점과 그의 연구가 진행되었던 시점 사이에는 무려 50년이라는 시대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사람들의 생활 및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교통과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과거 배타적이었던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무엇보다 대중매체를 통해 생산되는 대중문화의 위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처럼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은 기존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을 약화시켰고(Crane 1992; Peterson & Kern 1996), 다다이즘(dadaism) 및 팝아트와 같은 현대의 예술사조 역시 예술의 특권적 지위에 도전함으로써 고급문화의 우월성과 문화구분의 이분법적인 인식론의 기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그것이 문화 위계 체계의 직접적인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문화자본 논의가 더 이상 고급문화에 한정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현 상황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급문화 향유에 관한 항목들에 대중문화 향유에 관한 항목들을 추가하여 문화의 고급과 대중의 차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질문 문항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자본의 형성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영역 안에서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성: 고급문화 전통의 부재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은 300여 년이 넘는 계급 구조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 고급문화의 본산지인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서구의 국가들은 항상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왔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이들 국가들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의 특정 계급 집단이 영위해 온 생활양식과 그 사회 내에서 당연하게 권위를 인정받아 온 정통적 예술, 즉 상식적인 수준에서 고급문화로 분류되어 온 문화적 대상물들이 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다져온 서구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 사회는 일제 강점과 해방, 토지개혁, 6.25전쟁 등 매우 역동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였고, 이는 과거 한국 사회의 기득권 계층이었던 양반과 지주계급의 몰락으로 이어져 결국 한국 사회만의 고유한 귀족적 전통이나 고급문화 전통의 부재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Koo 1982; 김영모 1982; 정진상 1994; 최섯별 2002b).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문화는 이처럼 공백으로 남아 있던 한국 사회의 정통 문화 영역에 유입되어 점차 한국 사회의 고급문화로 자리잡아 가기 시작하였는데, 이 같은 현상은 서구 사회가 195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겪었던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당시 한국의 경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서구 사회의 영향력은 문화 분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한국인의 일상은 점차 서구화 되었고, 고급문화 역시 서구의 것으로 새롭게 규정지어지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편으로, 클래식 음악과 같은 서양의 고전음악 장르가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고급문화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우처럼, 한 사회 내에서 문화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고급문화는 해당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사회·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각 사회마다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문항의 각 항목들을 구성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해 해당 연구들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활용하되,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항목들을 적절하게 추가하여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연구에 보다 적합한 항목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3. 문화 활동에 있어서의 소비와 생산의 포괄

문화자본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요구되는 일련의 지식과 능력이라는 점에서, 문화자본은 문화 활동에 있어서의 소비 측면과 생산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는 사람들은 음악

을 콘서트나 음악회를 통해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 음악과 더욱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부르디외 2005: 150)는 부르디외의 주장은 문화자본의 바로 이 같은 측면을 잘 보여주는 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적 생산물을 그대로 소비하는 것과 스스로 문화적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것은 분명 다른 것으로 구분되며, 스스로 문화적인 생산물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통해 문화적 대상물을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문화적 대상물에 더욱 친숙하고, 문화적 대상물을 해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문화자본 개념이 갖는 이 같은 포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많은 연구들은 문화자본을 연구함에 있어 문화에 대한 취향을 문화에 대한 ‘소비 취향’으로 환원시켜 연구해 온 경향이 있다(Bryson 1996; Erickson 1996; Peterson & Kern 1996; Katz-Gerro 1999; Van Eijck 2001; DiMaggio & Mukhtar 2004; Chan & Goldthorpe 2005, 2007). 즉, 그동안 고급문화에 대한 취향은 주로 클래식 음악을 얼마나 자주 듣는지, 음악회에는 몇 번이나 가는지 등 그것을 소비하는 빈도와 횟수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의 소비와 생산은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연속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항목들을 구성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 온 음악 청취나 공연 관람과 같은 문화의 소비활동 이외에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기와 같은 문화의 생산활동을 추가해 문화자본의 소비와 생산 측면을 균형 있게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구성하고자 한다.

4.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네 개의 축

문화지형도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사회적인 위계와 문화적인 위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문화적인 실천의 경우 어떤 측면을 질문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채택되어 왔고 또 가장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문항들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지식 정도로 측정하는 문항과 좋아하는 선호 정도로 측정하는 문항, 그리고 얼마나 참여하는지 활동의 정도로 측정하는 문항이다. 영국에서 실시된 시각예술에 대한 조사의 응답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문항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화랑에 가는 비율은 그들이 선호하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미술이나 인상주의를 아주 좋아한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80% 이상이 화

량에 가는 것에 반해 풍경화나 정물, 초상화 등을 좋아한다고 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Silva 2006).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얼마나 참여했는지의 문항으로 질문하였을 경우에 사회적 위계와 문화적 위계 사이에 존재하는 훨씬 더 명료한 관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질문지의 각 항목들은 서로 다른 네 개의 개념적 축에 따라서 측정된다. 첫 번째 축은 문화자본 연구뿐 아니라 여러 사회조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선호’의 축이다. 이는 각 항목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서 문화자본의 핵심개념인 취향을 측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축은 ‘선호’와 더불어 널리 쓰이는 ‘참여/활동’의 축으로, 이는 각각의 문화예술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각 음악장르를 얼마나 자주 감상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일반적으로 선호의 축과 참여의 축은 동일한 것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앞서 제시한 예와 같이 이 두 축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이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축은 앞서 언급한 한국적 특수성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위계에 관한 것으로서, 각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장르의 고급스러움과 멋있음에 대해 묻는 ‘인지’의 축이다. 최선헌(2006b)은 프랑스와 달리 고급문화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문화자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고급문화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화 영역이 문화자본으로서 즉, 계급 재생산의 숨겨진 경로로서 작동하는지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들을 얼마나 선호하고 또 참여하는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인들에게 있어 ‘고급문화’로 인지되는 문화적 활동과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급스러움의 차원 이외에 현재 대중문화를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멋있음의 차원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문화양식에 대한 위계적 평가 구조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 보고자 하였고, 이에 ‘멋있음’의 축을 추가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적 위계에 대한 인지를 측정하는 문항의 축을 ‘고급스러움’의 축과 ‘멋있음’의 축으로 구분해서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사이의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중문화 중 고급문화로 인지되는 문화적 대상물의 문화적 위계를 ‘고급스러움’이 아닌 ‘멋있음’의 축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은, 현대에 들어와 그 위상이 급격하게 증가한 대중문화의 경우, 문화적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는 서양 고전음악이나 미술, 문학과 같은 전통적인 고급문화에 대한 인지와는 다를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탐색적 연구의 일환으로 대중문화에 친숙한 20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명에 대한 질적 면접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면접 대상자 전원이 가요 부르거나 춤추기와 같은 대중문화 관련 활동들의 문화 위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고급스럽다’ 보다는 ‘멋있다’의 축이 더 적절함을 지적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물론 이같은 이론적 축의 구성은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를 통한 확인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개발한 두 가지 축과 관련된 척도들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에 대해 추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만약 관련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가 높으면 두 축 사이의 관련성이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문화자본 현황을 포착하는 데 두 가지 축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럴 경우 두 가지 축 중에서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보다 높은 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두 축을 구성하는 개별 변수 간 상관관계가 낮으면 두 축 사이의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두 가지 축이 문화자본의 다른 차원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럴 경우 두 가지 축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각기 다른 인지적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다.

IV. 한국적 적합성을 지닌 문화자본 척도

1.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활동은 음악장르와 더불어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데 있어 부르디외 이후의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영역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 정도를 묻는 문항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종류와 양에 따라 범주화된 각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문화예술 활동들을 즐기는지 그 조합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 영역은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만큼, 다른 나라와의 비교연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항목 구성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부르디외는 자신의 통찰력 있는 이론을 정립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많은 자료와 분석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조사에서 활용된 문항들은 응답자들이 응답하기에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응답 결과를 계량화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어 그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던 많은 후속학자들은 부르디외의 문항들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항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정교한 통계분석을 함에 있어 한계점을 갖는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되었다.

디마지오(1982)는 부르디외 연구가 갖는 이 같은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1960년부터 수행된 종단연구 'Project TALENT'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태도(attitude)'와 '활동(activities)', 그리고 '정보(information)'의 세 측면을 통해 미국 청소년들의 문화자본을 측정하였다. 문화자본 측정에 사용된 이 척도는 부르디외의 이론을 자원으로 하면서, 동시에 정교한 통계적 조작 또한 가능하도록 방법론적 차원에서 보완되어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디마지오가 사용한 문화예술 활동 관련 항목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미술 전시회 관람, 문학작품 읽기, 음악회 방문 등 고급예술이라 불리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고급예술이라 할 수 없는 사진 찍기, 공예, 목공예 등의 문화예술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표 1〉 참조). 이들은 중층활동(middlebrow activities)이라 할 수 있는 활동들로서, 디마지오는 이 활동들을 즐긴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계급적 배경이 고급예술과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긴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계급적 배경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각기 다른 두 범주의 문화예술 활동들간의 상관성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였다. 디마지오의 이같은 지적은 곧 고급예술과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중층활동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까지 설문 문항의 항목에 포함시킬 경우, 다양한 계급 배경을 가진 응답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급예술이라 불릴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과 더불어 사진 찍기 등 중층활동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들을 설문 문항 항목에 포함시켰다.

디마지오의 1982년 연구는 그러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분야의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 설문 문항에 사용된 문화예술 활동의 영역이 다소 제한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이 디마지오와 오스트로(DiMaggio & Ostrower 1990)의 연구로, 이들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용(발레), 뮤지컬, 미술레슨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문화적 실천들을 면밀히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표 1〉 선행연구들의 문화예술 활동 문항 항목

디마지오(DiMaggio 1982) ¹⁾				
태도	미술 전시회 관람			
	문학작품 읽기			
	심포니 음악회 관람			
활동	미술작품 만들기			
	문학작품 읽기			
	음악회 등의 예술관련 행사 참석			
	공연하기(연기하기)			
	중층활동	사진, 공예, 목공, 바느질		
디마지오와 오스트로(DiMaggio & Ostrower 1990)				
소비	공적 소비	공연 예술	재즈/클래식/오페라/뮤지컬 공연 관람	
			연극 관람	
			발레 공연 관람	
		시각 예술	미술관/갤러리 방문	
			과학/역사 박물관 방문	
			역사적 장소 방문	
			예술 혹은 공예 박람회 방문	
	사적 소비	TV에서 재즈/클래식/오페라/뮤지컬 시청		
		TV에서 연극 시청		
		TV에서 발레 시청		
		예술에 관한 TV프로그램 보기		
	생산	미술 레슨 받기		
		문예창작 연습		
사진 찍기/예술로써 영화 만들기				
도예/공예 연습				
그림 그리기				

1) 이 외에 그가 문화자본 척도를 구성하는 데 포함시킨 항목들에는 ‘음악작곡가, 시인, 미술가’라는 직업에 대한 태도, ‘음악, 문학, 미술’에 대한 지식·정보,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교양 있는 이미지를 지녔는가’에 대한 척도(cultivated self-image scale) 등이 있으나, ‘문화예술 활동’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 연구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문항 구성에 있어 고려하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는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설문 문항에 포함시켰다는 것 외에,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1982년 수행된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Arts(SPPA)의 문항들을 토대로 문화자본 척도를 구성한 이들의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항목들을 크게 ‘소비’와 ‘생산’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같은 분류는 대부분 소비 위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던 기존 연구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산 측면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들을 각각 소비와 생산이라는 범주로 묶어 지수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디마지오와 오스트로(1990)의 연구가 갖는 이 같은 장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비’와 ‘생산’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문항들을 사용하여 문화자본을 측정한 주요 선행 조사들로는 1993년 수행된 General Social Survey(GSS)와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수행된 영국의 ‘문화자본과 사회적 배제’(Cultural Capital and Social Exclusion, CCSE) 조사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미술(시각예술), 문학, 음악, 연극, 무용이 핵심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급문화’와 관련된 항목들에 이 핵심영역으로 다루어진 항목들을 포함시켰다. 이들 조사들은 또한, 디마지오(1982)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기존의 문화 실천 형태와 구별되는 인터넷 및 별도의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문화 활동과, 락 콘서트 관람, 영화 관람 등 대중문화와 관련된 영역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는 특히 대중문화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새롭게 확장된 문화예술 활동이라 판단하여 본 연구의 ‘대중문화’와 관련된 항목들에 포함시켰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내의 대규모 양적 조사로는 2005년에 수행된 ‘문화향수실태 조사’와 문화를 특별 주제 모듈로 한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들의 경우, 그 동안 국외 후속 연구들의 지침이 되어 온 디마지오(1982)의 항목들과는 많이 달라 이들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의 연구결과는 국외 연구들의 연구결과와 비교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들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을 측정하는데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디마지오(1982)의 연구와 디마지오와 오스트로(1990)의 연구를 주축으로 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소비’와 ‘생산’의 차원을 모두 고려하였고, 핵심영역인 고급문화 즉, 미술, 문학, 음악 부분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한국 사회에서의 대중문화의 위상 변화 등 지역적·시기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핵심영역 이외에 대중문화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활동들도 다양하게 포함시켰다.

〈표 2〉 문화예술 활동 측정 항목의 구성

영역	차원	문화예술 활동 측정 항목	
		선행 연구	본 연구
미술	소비	미술관 방문	미술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박물관 관람
	생산	미술작품 만들기/그림그리기	미술활동
		도예/공예 연습	
문학	소비	문학작품 읽기	문학작품 읽기
	생산	문예창작 연습	소설 또는 시 쓰기
음악	소비	심포니 음악회 참석	클래식 음악회/오페라 공연 관람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생산	-	클래식 악기 연주
			밴드 관련 악기 연주
		-	성악하기
			가요 부르기
			음악앨범 편집하기
			작곡 또는 작사하기
연극 공연	소비	연극 관람	연극/뮤지컬 관람
		뮤지컬 관람	
	생산	공연하기(연기하기)	연기/연극하기
무용	소비	발레공연 관람	무용공연 관람
	생산	-	발레나 현대무용하기
			최신 유행 춤추기
영화	소비	영화관람	영화관람
	생산	예술로서 영화 만들기	영화제작
		-	UCC 동영상 제작
사진	소비	-	사진 전시회 관람
	생산	사진 찍기	사진 찍기
만화 애니	소비	만화/애니 감상	만화/애니 감상
	생산	-	만화 그리기/애니메이션 만들기
일반 (기타)	소비	미술 레슨 받기	문화예술 관련 강좌/레슨 수강
	생산	-	대본/시나리오 쓰기

〈표 2〉는 이상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측정하는 문항의 항목 구성을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와 생산의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미술 영역의 경우 관람과 활동으로, 문학 영역의 경우 문학작품 읽기와 소설 또는 시 쓰기로, 음악 영역의 경우 관람과 악기 연주 등으로, 그리고 연극/공연 및 무용 영역의 경우 관람과 활동으로 항목을 구성하였고, 영화, 사진, 만화/애니, 일반(기타) 영역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와 생산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관람과 활동으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2. 음악장르

일찍이 부르디외가 “한 사람의 계급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분류하는 것은 음악에서의 취향이다”라고 단언했을 만큼, 음악은 문화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부르디외는 그의 연구에서 음악장르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여 각 계급의 문화자본을 측정했는데, 이러한 그의 연구 방식은 앞서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연구는 문항의 항목 차원에서 클래식 음악과 프랑스 음악이라는 매우 협소한 범위의 음악만을 다루 다양한 음악장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문항의 변수 차원에서도 주로 선다형과 이분형의 문항을 사용하여 정교한 통계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후속 연구자들은 부르디외 연구가 갖는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계급과 음악 취향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보다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런데 음악의 경우 다른 문화예술 활동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때 많은 연구자들이 취향으로서의 음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다양한 음악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장르(genre)’였다.

장르란 ‘종류’ 혹은 ‘유형’을 뜻하는 말로서, 표면적으로는 의례적(ritual) 분류에 속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문화적 텍스트와 사회집단 간의 복잡한 역학 관계의 산물로 구성되는 것이다(DiMaggio 1987). 즉, 장르가 형성된다는 것은 사실상 음악의 생산자들과 수용자들이 음악적 스타일의 차이와 유사성 등에 근거한 분류에 합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장르의 구분이 임의적인 분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제도화 되어 있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때문에 ‘장르’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모두 다룰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 역학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계급과 음악 취향 간의 관계를 보다 잘 보여주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부르디외 이후의 많은 후속 연구자들은 음악장르에 대한 선호를 통해 각 계급 구성원들의 음악 취향과 그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을 연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피터슨과 심커스(Peterson & Simkus 1992), 피터슨과 켄(Peterson & Kern 1996), 그리고 브라이슨(Bryson 1996)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피터슨과 심커스(1992), 피터슨과 켄(1996)은 계급과 취향의 상응성 연구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된 옴니보어(omnivore) 가설을 통해, 그리고 브라이슨(1996)은 음악 취향에 있어 완공과 배제의 경계들을 밝혀냄으로써 각 나라에 따라 문화자본의 형태, 내용, 기능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각 국에의 적합성을 지닌 척도들의 개발과 연구의 필요성을 고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들이 사용한 국외의 음악장르 분류 2개와, 국내의 2개 조사에서 사용된 음악장르 분류 등 총 4개 조사에서 사용된 음악장르 분류를 고려하여 음악장르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 중 피터슨 외(1992; 1996)가 사용한 데이터는 1982년에 수행된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SPPA)로 총 13개의 음악장르를 포함하고 있고, 브라이슨(1996)이 사용한 데이터는 ‘문화’를 특별 주제 모듈로 하여 1993년 수행된 1993 General Social Survey(GSS)로 총 18개의 음악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SPPA와 GSS의 음악장르 구분은 그 분류가 다양하고 구체적이어서 여러 음악적 스타일을 포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Bluegrass나 Big Band와 같이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한국 사회에 적용되기 어렵거나, 한국인의 음악 취향을 측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것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Latin이나 Reggae와 같은 음악장르에 대한 애호층이 어느 정도 생성되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음악장르들은 미국 내 하위집단의 하위문화로, 동일한 음악장르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 할 수 있어 장르의 수나 범위, 그 장르가 해당 사회에서 갖는 의미들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 사회에의 완전한 적용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2000년 중반부터 문화자본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2005년 수행된 ‘여성문화향수실태조사’와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음악장르를 구분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음악장르 선호를 분석한 후속 연구들은 주로 이 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역시 두 조사에서 제시한

〈표 3〉 선행 조사들의 음악장르 항목

1982 SPPA	1993 GSS	2005 여성 문화향수 실태조사	2007 KGSS
Classical/Chamber Music	Classical-Symphony & Chamber	클래식	클래식
Opera	Opera		
Jazz	Jazz	재즈/블루스	재즈/블루스
Soul/Blues/R&B	Blues or R&B		
Big Band	Big Band/swing		
Barbershop	-		
Operetta/Broadway Musicals/Show Tunes	Broadway Musicals/Show Tunes	-	뮤지컬
Hymns/Gospel	Gospel Music	종교음악	종교음악
-	New Age/Space Music	뉴에이지	-
Country/Western	Country/Western	컨트리/포크	발라드/포크/컨트리
Bluegrass	Bluegrass		
Folk	Folk Music		
Mood/Easy Listening	Mood/Easy Listening	발라드/팝	-
Rock	Contemporary Pop/Rock	록/메탈/인디	락/헤비메탈
	Oldies Rock		
-	Rap Music	R&B/랩/힙합	힙합/랩/댄스
	Heavy Metal	-	-
	Reggae		
	Latin/Mariachi/Salsa		
-	-	전통음악	민속음악
		성인가요	트로트/뽕짝
		OST/광고음악	기타

음악장르 구분에 바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은 전술한 조사들에서 구분한 음악장르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해외에서 수행된 조사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실시된 조사들의 경우 한국의 특수한 음악장르라 할 수 있는 트로트와 전통음악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조사가 갖는 이 같은 특징은 한국적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음악장르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조사가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라드/포크/컨트리와 같은 장르들을 묶어 제시했다는 점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대중문화의 성장과 음악분야의 확장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수많은 경우

의 수를 가질 수 있는 음악 취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살피는 데 제약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 조사들이 갖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특수성을 살필 수 있는 항목들과 더불어 기존의 음악장르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 연구들의 경우, 한국의 특수한 음악장르라 할 수 있는 트로트나 전통음악 등을 항목에 포함시킬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따랐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구성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4>는 본 연구의 음악장르 항목의 구성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본 연구의 음악장르 항목 구성의 근거

음악장르		구성의 근거	음악장르		구성의 근거
가요	발라드	소분류 장르	팝송	팝	소분류 장르
	댄스	소분류 장르		힙합/랩	소분류 장르
	힙합/랩	소분류 장르		락	가요와 대응시킴
	락	소분류 장르		R&B/소울	소분류 장르
	R&B/소울	소분류 장르		메탈/하드코어	소분류 장르 브라이슨의 연구 반영
	메탈/하드코어	팝송과 대응시킴		일렉/테크노	가요와 대응시킴
	일렉/테크노	소분류 장르		컨트리/포크	브라이슨의 연구 반영
	포크	팝송과 대응시킴		-	
	성인가요	소분류 장르 한국적 특색		-	
	인디음악	소분류 장르 방식보다는 장르 ²⁾		-	
	민중가요	한국적 특색 (정치적 특색)			
클래식		대분류 장르			
재즈		대분류 장르			
국악		대분류 장르			
종교음악 (CCM/가스펠/찬불가)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지니는 중요성으로 인해 추가			
뉴에이지		최근 형성된 장르로 고급/대중 사이의 크로스오버적인 성향			
팝페라		최근 형성된 장르로 고급/대중 사이의 크로스오버적인 성향			

2) 인디음악을 장르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박준흠 2007: 27-28).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디음악은 특정 음악장르로 통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음악장르의 세부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우선 전술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음악장르 구분에 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기존의 음악장르 구분들이 한국적 상황에 적용됨에 있어 갖게 되는 한계 및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그 후, 음반판매 사이트³⁾ 중 점유율이 높은 세 곳을 선정하여 각 사이트에서 제시한 음악장르 분류들을 수집하였고, 이 분류들을 앞서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이 사용한 음악장르 분류들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음악장르들 가운데 고유한 음악적 스타일을 대표하는 클래식, 재즈, 국악, 종교음악, 뉴에이지, 팝페라 장르를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그 동안 사람들의 음악 취향을 분석하고자 한 국내의 많은 선행 연구들은 동일한 음악장르라 하더라도 서구의 음악이나 한국의 음악이나에 따라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선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왔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한국 음악과 서구 음악 사이의 차이점을 반영하지 않은 음악장르 분류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음악장르 분류의 사용은 각 나라의 특성과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중음악 내의 상징적 경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제약이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음악장르 내에서 그려질 수 있는 상징적 경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중음악장르를 한국의 대중음악(가요)과 서구의 대중음악(팝송)의 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구분을 토대로 전술한 세 사이트에 제시된 세부 음악장르들 중 두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제시된 음악장르들을 선별하여 본 연구의 음악장르 항목에 포함시켰다.

〈표 4〉에 제시된 음악장르 항목 중 ‘가요와 대응시킴’으로 표시된 락과 일렉/테크노, 그리고 ‘팝송과 대응시킴’으로 표시된 메탈/하드코어와 포크는 세 사이트 중 두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음악과 서구 음악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상징적 경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음악장르라 판단되어 최종 항목에 포함시킨 것들이다. 예를 들어, 팝송에 포함된 락 장르의 경우 세 사이트 중 한 개 사이트에서만 제시되어 본 연구의 음악장르 선별 기준에는 맞지 않았지만, 가요에 포함된 락 장르의 경우 세 사이트 중 두 개 사이트에서 제시되어 본 연구의 장르 선별 기준에 부합하여 최종 항목에 포

3) 음반판매 사이트는 앨범·아티스트를 장르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단일곡 검색기능이 강한 음악감상 사이트들에 비해 보다 일반적인 장르구분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의 순위를 선정하는 랭키닷컴(www.rankey.com)의 2006년 2월 5일 기준의 순위를 참고하여, “온라인 음반/CD쇼핑몰” 분야에서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하였으며, 26.2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포노(www.phono.co.kr), 23.73% 점유율의 오이뮤직(www.oi.co.kr), 그리고 16.05% 점유율의 핫트랙스(www.hottracks.co.kr)이 포함되었다.

함시켰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선별된 음악장르는 총 24개로, 본 연구는 이 음악장르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음악장르 항목을 구성하였다.

3. 한국 사회 문화자본의 네 개의 축

앞서의 1절과 2절을 통해 문화자본 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문화예술 활동 영역과 음악장르 영역에 관련된 문항들의 세부 항목을 확정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 절을 통해서는 확정된 문항의 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영역으로 선정한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장르들에 대하여 ‘선호’, ‘참여/활동’, ‘인지 - 고급스러움의 차원’, 그리고 ‘인지 - 멋있음의 차원’이라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측면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문화예술 활동이나 음악장르에 대한 선호 및 관심의 차원, 그리고 참여 및 활동의 차원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선호 및 관심의 차원을 포함하였고, 더 나아가 여기에 인지의 차원을 더하여 ‘고급스러움’의 차원과 ‘멋있음’의 차원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왜냐하면 문헌고찰을 토대로 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별되고, 또 전문가 토론 및 질적 조사를 통해 구성된 항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적 경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의 ‘선호·참여·인지(고급/대중)’에 관한 네 가지 형태의 질문을 동시에 묻는 방식을 채택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항과 척도를 구성하였다. 먼저 ‘다음의 항목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선호’의 측면을 측정하였고, 이 때 문항들에 대한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1: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5: 매우 좋아한다’의 형태로 응답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 ‘다음의 항목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문항을 통해 ‘참여/활동’ 측면을 측정하였으며 ‘1: 전혀 한 적이 없다’에서부터 ‘5: 매우 자주했다’의 형태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통해서는 고급스러움의 경계가 인지적 차원에서 어떤 활동 또는 장르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보고자 하였으며, 이때에도 역시 ‘1: 전혀 고급스럽지 않다’부터 ‘5: 매우 고급스럽다’의 형태로 응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인지적 경계 가운데 멋있음의 차원 즉 대중문화에 관련된 어떤 활동이나 장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척도 역시 다른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주어졌으며 '1: 전혀 멋있지 않다'부터 '5: 매우 멋있다'의 형태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음악장르'에 대한 선호·참여/활동·인지(고급문화/대중문화)에 대한 네 가지 문항과 척도는 앞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문항 척도와는 달리 '6: 장르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음악장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이해가 깊은 사람에 비해 장르에 대한 자신의 인지 및 선호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항목 중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음악장르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선호를 측정하고, 문화예술 활동과 마찬가지로 '1: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5: 매우 좋아한다'의 형태로 응답하게 하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장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6: 장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를 추가하였다. 두 번째로, 참여/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의 음악장르를 얼마나 자주 감상하셨습니까?'를 묻고 '1: 전혀 한 적이 없다'부터 '5: 매우 자주 했다'의 형태로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문화예술 활동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럽다는 차원의 인지적 경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는 다음의 음악장르가 얼마나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멋있다는 차원의 인지적 경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는 다음의 음악장르가 얼마나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이 두 문항의 척도로는 '1: 전혀 고급스럽지 않다'부터 '5: 매우 고급스럽다'와 '1: 전혀 멋있지 않다'부터 '5: 매우 멋있다'의 형태로 응답하게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화예술 활동과 달리 '6: 장르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를 추가하여 장르를 구분할 수 없는 응답자들을 구분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규모 조사 자료에 근거한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지형도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집적된 기존 자료와의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에 적합한 질문 문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자본과 관련된 국내·외의 광범위한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주요 문헌과 조사들에서 사용한 척도 및 관련 질문지들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질문지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영역과 차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영역과

차원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한 질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각 분야별 문헌 조사와 전문가 조사, 그리고 대상자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본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온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장르를 질문 문항의 주요 영역으로 선정하여 서구 국가들에서 집적된 기존 연구결과들과의 비교가 용이하게끔 하였다. 항목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고급문화’와 ‘소비’ 측면을 고려함과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인 변화 및 사회적인 요인들을 반영하여 ‘대중문화’와 ‘생산’의 측면까지를 아우르는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디마지오(1982)와 디마지오와 오스트로(1990)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문항의 경우, 우선 ‘고급문화’라 불리는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미술과 문학, 그리고 음악에 관한 항목들을 소비와 생산의 차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후, 현대 한국 사회의 시대적·사회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의 영역과 생산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항목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음악장르의 경우, 기존의 음악장르 선호에 대한 연구들 중 피터슨과 심커스(1992), 피터슨과 켄(1996), 그리고 브라이슨(1996)의 연구에서 제시한 음악장르 구분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 비교적 구체적으로 음악장르를 구분했던 ‘여성문화향수실태 조사’와 ‘KGSS’의 음악장르 구분을 활용하였다. 문헌 고찰 결과, 국외의 음악장르 구분은 한국인들에게 낯선 측면이 있어 한국인들의 음악 선호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 않은 한편, 국내의 음악장르 구분은 대중문화의 확장 및 음악 산업의 성장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 부분을 매우 협소하게 분류해 놓음으로써 그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일정 조건을 갖춘 객관적 선별 기준을 세워 클래식이나 재즈 등 고유한 음악 장르를 우선적으로 구분하여 추출한 뒤, 대중음악을 한국과 서구의 차원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각각 한국의 가요와 서구의 팝으로 대응시켜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된 항목들에 대해 ‘선호’, ‘참여/활동’, ‘인지적 경계 - 고급스러움의 차원’, ‘인지적 경계 - 멋있음의 차원’의 각 측면을 동일하게 묻는 질문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문화자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사용된 방대한 양의 질문 문항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여기에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들을 추가하여 보다 한국적인 문화자본을 찾아낼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고, 이로써 그 동안 서구 중심으로 진

행되어 왔던 문화자본 논의에 있어서의 비서구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집적된 외국 자료와의 비교가 가능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비교사회학적 시각에서의 많은 연구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화예술 활동 및 음악장르 선호에 관한 척도는 이를 활용한 대규모 양적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자본 연구에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음악장르의 고급스러움과 멋있음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 정치에 대한 양적 자료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연구들은 무엇이 한국 사회에서 고급문화로 인지되는지에 대한 기초적 연구 없이 서구의 인지적인 범주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고, 때문에 한국 사회의 각 사회 계급이 고급문화와 맺고 있는 상응성 문제에 대해서는 늘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무엇이 한국 사회의 고급문화인지를 보여 주는 한국 사회 문화자본의 인지적 차원의 지형도를 제공하는 이 척도의 결과는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한 문화자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자본 연구를 한 단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근·변수용. 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7(1): 23-51.
- 김영모. 1982. 《한국지배층연구》. 일조각.
- 김현주·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 박상곤·박석희. 2006. “문화자본이 여가소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0(6): 241-258.
- 박준흠. 2007. “기획특집: 한국의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모색과 전망;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인디음악이 갖는 의미 - 지난 10년간의 음악전문매체 음악시상식을 중심으로 분석 -. ” 《민족문화논총》 35: 27-54.
- 백병부·김경근. 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부르디외. 최종철 역.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새물결.

- 이기흥. 2005. “한국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3): 1-21.
- 이호영·장미혜·박현주. 2006. “문화자본이 정보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2006(06-02): 1-138.
- 장상수. 2007.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계열 선택.” 《한국사회학》 42(2): 118-146.
- 정진상. 1994. “한국전쟁과 계급구조의 변동.” 한국산업화연구회편 《계급과 한국사회》. 한울아카데미.
- 조광익. 2006. “여가 소비 양식의 분석을 위한 문화자본 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0(1): 379-401.
- 최셋별. 2002a.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고전음악전 공여성사례” 《한국사회학》 36(1): 113-144.
- 최셋별. 2002b.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자본의 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4(3): 113-144.
- 최셋별. 2006a. “한국사회에 문화자본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창간호: 123-158.
- 최셋별. 2006b. “상징적 경계와 한국 사회의 문화 자본 연구.” 《사회와 이론》 2: 191-227.
- 한신갑·박근영. 2007. “〈구별짓기〉의 한국적 문법: 여가활동을 통해 본 2005년 한국사회의 문화지형.” 《한국사회학》 41(2): 211-239.
- Bisseret, N. 1974. “Langages et Identité de Classe: Les Classes Sociales se Parlent.” *L'Année Sociologique* 25. 237-264.
- Bourdieu, P. 1984. *Distinctions: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yson, B. 1996. “Anything But Heavy Metal: Symbolic Exclusion and Musical Dislik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884-899.
- Chan, T. W. and J. H. Goldthorpe. 2005.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Theatre, Dance and Cinema Attendance.” *Cultural Trends* 14(3): 193-212.
- Chan, T. W. and J. H. Goldthorpe. 2007. “Social Stratification and Cultural Consumption: Music in Englan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1): 1-19.
- Crane, D. 1992. “High Culture versus Popular Culture Revisited: A Reconceptualization of Recorded Cultures.” In Michelle Lamont and Marcel Fournier(eds.). *Cultivating 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 Graaf, N., P. De Graaf, and G. Kraaykamp. 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3: 92-111.

- DiMaggio, P. 1979. "Review Essay: On Pierre Bourdieu."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6): 1460–1474.
-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 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189–201.
- DiMaggio, P. and J. Mohr. 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1231–60.
- DiMaggio, P. 1987. "Classification in Ar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440–455.
- DiMaggio, P. and F. Ostrower. 1990. "Participation in the Arts by Black and White Americans." *Social Forces* 68: 753–78.
- DiMaggio, P. and T. Mukhtar. 2004. "Arts Participation as Cultural Capital in the United States, 1982–2002: Signs of Decline?" *Poetics* 32: 169–194.
- Dumais, S. A. 2002. "Cultural Capital, Gender, and School Success: The Role of Habitus." *Sociology of Education* 75(1): 44–68.
- Eicher, J. and A. Mingat. 1975. "Education et Egalite." *Education, Inequality, and Life Change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Erickson, B. H. 1996. "Culture, Class, and Conne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 217–251.
- Gans, H. 1974.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 Heikkila, R and K. Rahkonen. 2011. "It is not a Matter of Taste: Cultural Capital and Taste among the Swedish Speaking." *European Societies* 13(1): 143–163.
- Katz–Gerro, T. 1999. "Cultural Consump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Leisure Activities, Musical Tastes, and Social Loca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42(4): 627–646.
- Koo, Hagen. 1982. "A Preliminary Approach to Contemporary Korean Class Structure." In Chang, YunShick and Kwan, Tai–Hwan(eds.). *Society in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amont, M. and A. Lareau. 1988. "Cultural Capital: Allusions, Gaps and Glissandos in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s." *Sociological Theory* 6(2): 153–168.
- López–Sintas, J., M. E. Garcia–Alvarez, and N. Filimon. 2008. "Scale and Periodicities of Recorded Music Consumption: Reconciling Bourdieu's Theory of Taste with Facts." *The Sociological Review* 56(1): 78–101.
- Peterson, R. and A. Simkus. 1992. "How Musical Tastes Mark Occupational Status Groups." In Michelle Lamont and Marcel Fournier(eds.). *Cultivating 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terson, R. and R. M. Kern. 1996. "Changing Highbrow Taste: From Snob to Omnivo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900-907.
- Silva, E. B. 2006. "Distinction Through Visual Art." *Cultural Trends* 15: 141-158.
- Van Eijck, K. 2001. "Social Differentiation in Musical Taste Patterns." *Social Forces* 79(3): 1163-85.

<접수 2012/2/13, 1차 수정 2012/2/29, 2차 수정 2012/3/11,
게재확정 2012/3/12>

